

주일의 말씀

그들의 선택

김윤호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
새방골성당 주임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물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루카 5,11)

오늘 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파악을 위하여 어느 잡지에 실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들과 아들의 친구가 바닷가에서 놀다가 그만 파도에 휩쓸려 둘 다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아버지의 손에는 오직 한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구명조끼 밖에 없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누구에게 그 구명조끼를 던질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는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고 아들의 친구를 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들의 친구를 죽게 놔둘 수도 없고, 그때 아버지에게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착실하게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에, 만일에 죽더라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반면 성당에 가본 적 없는 아들의 친구는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라고 외치고 구명조끼를 아들의 친구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 하느님께서도 당신의 아들 대신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느님을 믿으십시오.”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어떻게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들(제자들)의 입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자신들에게 밥줄인 고기잡이를 그만 두고 당신을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주문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알아듣

기가 너무 어렵고 난해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구절과 ‘확신’이란 말의 연관성을 생각해 봅니다. 복음에 나오는 그들(제자들)을 움직이게 했던 근본적인 동기는 그 어떤 ‘확신’입니다. 그런 확신이 아니고서는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생계수단인 고기잡이 일을 쉽게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그 어떤 일, 가치 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확신감이 그들(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개편된 본당기구 이해를 위하여」란 책자에 보면, 여러 단체, 위원회 회칙(규약)이 나오는데 그 부칙 1항의 내용입니다.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교회법 규정과 일반 통례에 준한다.” ‘교회법 규정과 일반 통례’란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교회 정신’이 아닌가 합니다. 교회 정신은 예수님 체험을 통한 어떤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체험이 없는 생활로 무기력하고 형식적인 우울한 신앙 생활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체험이 없으니 소신도 확신도 생길리 없습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희생 봉사만이 아니라 더 큰 사랑 가치인, 예수님 체험을 통한 확신에 있음을 오늘 복음을 통하여 묵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루카 5,8)

생명의 말씀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루카 5,11

이사 6,1-2, 3-8 1코린 15,1-11 루카 5,1-11.

미신(迷信) 5

차 안의 성물 미신 아닌지요?

교구 사목국

어떤 질문?

“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차에는 목주가 걸려있고 또 운전석 앞에 십자가상을 세워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차에 걸어놓는 것은 단지 사고의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기복적인 신심 또는 미신이 아닌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느님을 믿는 신자가 성물이나 성상들이 어떤 영험한 효력이 있다는 생각으로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자동차에 걸 어두면서 그 효험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분명 일종의 미신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성화나 성상을 모시는 오랜 전통과 관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관습이 미신행위는 아닙니다. 이러한 관습의 바탕에는 신자들이 성상이나 성물들을 통해 예수님과 성모님 그리고 성인·성녀들에 대한 흠숭과 공경을 쉽고도 효과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긍정적인 신앙의 이유가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관습은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크긴 하지만 간혹 가톨릭신자들은 우상숭배를 한다는 비판의 소리를 듣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분명 성상이나 성물에 대한 우

리의 잘못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니 만큼 우리 신자들도 성상이나 성물을 대할 때 항상 올바른 자세를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에 목주나 십자가상을 걸어두는 이유가 그 성물들 자체가 자동차로 인하여 생기게 될 온갖 위험들에서 나를 보호해 주리라는 생각 때문이라면 이는 분명 미신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물들을 통해서 보다 더 가까이 주님과 성모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운전할 때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더 나아가 운전 중에 욕을 많이 하는 습관이 있는 분이 그러한 욕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는다면 참 좋은 일이라 할 수 있겠지요.

자동차 안에 성물이나 성상을 두는 것이 반드시 미신이나 기복신앙의 표시는 아닙니다. 다만 이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스스로를 미신행위자로 만들기도 하고 또는 멋진 신앙인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자동차 안에 걸어 둔 성물이 효력을 발휘하여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음, 불행하게도 미신행위. 그 성물로 인해 내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느님과 함께 안전운전 한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와우, 멋진 신앙인!!!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다음 주보에 계속)

게으른 어부(?) 되지 말고

박성규 엘리자오





오늘의 미사

연중 제5주일

입당성가

329 미사시작

화답송

◎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221 받아주소서

영성체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
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파견성가

400 주님과 나는

영성의 향기

:: 영적 여정

우리는 언제 신명나고 생동감 넘치는 영적여정을 시작하게 될까요? 영적 생활의 출발점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인격적인 책임감이 느껴질 때라고 하는데 그 때는 신앙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 남을 가르칠 수 있게 될 때라고도 하며 인간의 유혹이나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을 때이며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데 혼신을 다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된 지식과 분별력을 갖추어 성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날입니다.



영적 여정에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적 여정이지만 영성가들은 거기에는 단계가 있다고 얘기해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의 인격적이고 영성적이고 심리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영적 성숙에 대한 단계를 처음 구분했던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였습니다. 그는 영성생활이란 관상을 통한 신비체험을 기초로 하여 하느님에 대해 완전하게 알게 되는 경지에 오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선 관상단계에 이르고 그 다음에는 계명을 완수 하고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여 하느님을 완전하게 아는 단계에 이른다고 설교했습니다. 

- 권 가타리나 수녀 -

짧은 글, 깊은 생각

손녀딸의 데이트



한 노신사가 꽃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멋진 꽃다발이 필요하오, 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집에서 가장 멋진 꽃다발을 만들어 주시오.” 그리고 환한 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내일은 손녀딸이 처음으로 데이트를 하는 날이래오.”

꽃가게 주인은 꽃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물었습니다. “그 어린 아가씨는 몇 살 인가요?” “이제 세상에 나온 지 두 주일 되었다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꽃가게 주인은 깜짝 놀라 돌아다보았습니다. “지금 손님께서 데이트한다고 꽃다발을 만들어 달라고 한 손녀딸이 겨우 두 주일 된 아기란 말씀입니까?”

“그렇다오, 난 아기의 데이트에 딱 어울리는 꽃다발이 필요하오, 손녀가 내일 세례를 받는다오, 그러니 평생에 가장 중요한 데이트가 아니겠소?” 

- 율려온 굴입니다. -

교구 주보 축일 성모당 전대사 미사

- 일시: 2.11(목) 14:00
- 교해성사: 13:00, 장소: 교구청 별관
-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1주기 기일 미사**
- 일시: 2.16(화) 11:00
- 장소: 주교좌 계산성당
- 집전: 조환길 주교

★ 모임 · 행사 ★

발성법시편성가연수(회비:1만원)Sr.김정선,이병삼

- 일시: 2.7(일) 15:00, 장소: 가톨릭음악원(255-4847)

본당 반주자들을 위한 겨울학교(255-4847)

- 강사: 박수원(연세대 출강), 개강: 2.12(금)부터
-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선종 1주기 추모음악회**
- ‘팜페라 테너 임형주&Memory’
- 일시: 2.20(토) 19:00 대구시민회관 대공연장
- 문의: 422-4224(티켓가: 4만4천원~9만9천원)

★ 성소모임 · 파정 ★

제주 성이시돌 파정 알림(미사,말씀,성지순례,자연파정)

- 일시: 2.21(일)~23(화), 2.25(목)~27(토), 3.8(월)~10(수)
3.15(월)~17(수), 3.21(일)~24(수), 4.6(화)~9(금)
- 장소: 제주 성이시돌 목장 내
- 신청: 성이시돌 파정센터 02-773-1455
- ※ 개인, 구역반장 및 단체 환영

선교훈련 시그마코스 13기

- 일시: 3.12(금)~14(일)
- 장소: 충북 청원 엠마우스 파정의 집
- 대상: 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신자(개인 또는 단체)
- 문의: 031-985-2808 미래사목연구소

수도자와 함께 하는 순례의 길

- 일시: 4.19(월)~28(수) 9박10일
- 내용: 이집트, 이스라엘
- 주최: 아제시의프란치스코전교수녀회영성연구소
- 문의: 010-7131-3097 권루치아 수녀

★ 모집 · 교육 ★

제25기 예비신자 교리반 봉사자학교 개설

- 일시: 2.22(월)~26(금) 13:30~17:00(함께하는 여성)
- 장소: 남산동 대신학교 강의동 2층 제9강의실
- 문의 및 신청: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아버이 성경학교 평생 교육반 모집

- 일시: 매주 월 10:00-12:30 / 19:00~21:30
- 접수: 1.2(토)~2.23(화), 면접: 2.21(일)~23(화)
- 대상: 아버지 성경학교졸업자, 동등한 자격자
- 내용: 지혜서, 아가, 루카복음(심화)
- 문의: 아버지 성경학교 교육관 815-1114

취업/창업/봉사자를위한 장례지도사교육생 모집

- 7.17(토) 자격검정시험대비(연령,성별,학력 무)
- 취업반(20대~40대)/창업반/봉사반(40대이상)
- 문의: 대가대평교원526-3413 / 010-4142-4414

티업오신 마리아 성심 재속 3회월 모집

- 자격: 성모님을 사랑하는 55세 이하 신자
- 일시: 매월 넷째주 화10:00~17:00(첫모임-1.26(화))
- 장소: 교구청 성모당 꾸로실로 교육관
- 접수: 010-2635-0534 / 010-9620-4820

보다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ME주말초대

- 일시: 대구275차 2.26(금)19:00~28(일)18:00
- 장소: 한티파정의집, 문의: 473-5712
- ※ ME주말에서는더깊은사랑의대화방법을체험하게 됩니다.

2010년 재속 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

- 성 프란치스코를 따라 살고자 하는 분
- 대상: 만53세 이하, 문의: 632-9800
- 봉헌미사: 3.13(토)14:00, 장소: 월배성당

대구가톨릭대학교 부동산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 개강: 2.18(목)매주 수,목 10:00~13:00/19:00~22:00
- 부동산 경, 공매 채테크과정 30만원
-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감삼동캠퍼스 평생교육원
- 문의: 568-9800 / 010-4161-4443

살레시오회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 대상: 만15~26세 남자(02-828-3600)
- 교육내용: 기계가공,CAD/CAM,자동화기계,인성교육
- 특징: 교육비·기숙사비무료, 훈련수당지급,
고집박운영,방동고편입학지도,취업알선
- 접수: 2.25(목)까지 수시접수, 면접전형

통신으로 배우는 신학과정 신입생 모집

- 대상: 세례받은평신도,수도자(만18세이상,학력제한 없음)
- 내용: 신구약성경및신학일반(그리스도론,전례학등26과목)
- 접수: 09.11.9(월)~10.2.12(금)(우편신청가능)
- 문의: 02-745-8339(직) / 02-747-8501~5(교)
- 홈페이지: <http://ci.catholic.ac.kr>(원서다운 가능)

필리핀 해외봉사&아학연수 단체 출국모집

- 일정: 2.24(수)~4.21(수)8주,~5.19(수)12주
지역,대상: 필리핀 바콜로드/대학생 및 성인
- 주관: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 문의: 593-1273 / 016-804-4410
- 내용: 캐나다, 호주영어연수 연계가능

아버이 성경학교 거룩한 독서반 모집

- 일시: 매주 수, 목 10:00~12:30
- 접수: 1.2(토)~2.23(화), 면접: 2.21(일)~23(화)
- 대상: 아버지 성경학교졸업자, 동등한 자격자
- 내용: 마태오복음
- 문의: 아버지 성경학교 교육관 815-1114

한티파정의 집 여자 주방직원 모집

- 문의: 011-9568-1388

★ 안내 ★

- ※ 2010년 교구주소록과 전화번호부가 발간되었습니다.
- ※ 한티성지후원회 월례미사가 2.22(월)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가 2.18(목)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2월 8일(월) 오전11시	성모당	포항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2월 8일(월) 오전11시	죽도성당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2월 8일(월) 오전11시 30분	2대리구청-범여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미사	2월 8일(월) 오전11시	신평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2월 8일(월) 오전11시	3대리구청-월성성당	원로사제 월요 낮 미사	2월 8일(월) 낮12시	성모당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2월 9일(화) 낮12시	계산문화관 3층선교센터

성모아이한의원

- 잦은감기(열, 비염, 천식, 중이염)
- 틱, ADHD, 식욕부진, 성장
- 난치성 아토피
- 언어(발달)장애, 자폐
- 대표원장 김 성 철 (비오)
- 지하철 2호선 성서공단역 8번 출구
- ☎ 592-1275, 593-1275

분도석유

- 전화 한 통화만 어느 곳이든 달려갑니다.
- ☎ 080-421-5151(무료전화)
- 424-2240, 743-1977, 957-9543

도우미 익스프레스

- 포장이사, 사무이사, 일반이사
- 대표 양 말 순 (루시아)
- 591-2424, 656-9911
- 010-2008-2329

성가정결혼상담소

-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 474-0025, 476-9275
- 가톨릭 문화관 2층
- 남대구우체국 옆 교대지하철 입구

이 원 의 료 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복지용구 판매
- 혈압계,혈당계,체력계,안마기,뜸,부항
- 변 상 범(도마뱀) 김 인 숙(아나타)
- 경대병원 응급실 앞
- 053-256-2512(대표),2513

효경요양보호사교육원
(노인복지센터 운영)

- ◎ 교육생 모집 ◎
- ※ 국가자격증 무시험 자격취득
- ※ 신규반, 경력자반, 재직자(무료)교육반
- ※ 자격증반(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 ☎ 교육원: 567-9057, 474-1577 센터: 564-1577, 475-1577
- 서비스 이용문의: 010-3153-9057

“전국택배가능” 천제명 홍삼

- 설맞이 행사 30%~10%
- 도석록(스테파노) 이옥이(설배아)
- 053-793-5325 / 010-7744-5768

결혼정보회사 MJ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미혼, 만혼, 재혼)

- 서울 - 고객센터 02)3141-3888
- 회원상담 02)338-0788
- 부산 - 고객센터 051)817-3888
- 회원상담 051)807-6205
- 전국대표전화: 1566-6205
- <http://mjms.co.kr> (마리아요셉.com)